

# EYA NEWSLETTER

## ENGLISH TITLES

### FICTION

제목 : RUBYFRUIT JUNGLE

가제 : 루비프룻 정글

저자 : Rita Mae Brown

출판사: Bantam

발행일: 1973년

분량 : 246 페이지

장르 : 소설



#### 세대를 뛰어넘어 가슴 깊이 전해질 한 여성의 성장기

펜실베이니아의 한 시골 마을, 가난한 집에서 자란 몰리 볼트. 부모인 캐리와 칼은 몰리가 자신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지만, 몰리는 일곱 살에 남자아이들과 야한 장난을 치다가 학교 선생님에게 발각되어 캐리에게 심한 꾸중을 듣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부모님의 친딸이 아닌 입양아이며 ‘루비 드롤링어’라는 문란한 여자가 낳은 아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된다. 다른 아이들보다 영리하고 눈에 띄는 아름다운 외모를 지닌 몰리는 양부모의 바람대로 가난에서 벗어나 성공하고 싶다는 열망을 품지만 어릴 때부터 자신의 성 정체성이 남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리고 그 차이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결심한다.

6학년이 된 몰리는 가장 친하게 지내던 동성 친구 레오타 비슬랜드와 처음으로 성적 관계를 맺는다. 플로리다 로더데일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에는 특유의 지성과 유머 감각으로 재학생 대부분을 차지했던 부유한 여학생들 사이에서 굉장한 인기를 얻는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어느 날,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사촌 르로이가 크레그라는 나이 많은 남성과 수차례 성관계를 맺으며 지냈다는 고백을 하고 몰리는 르로이와 처음으로 이성간의 관계를 경험한다. 하지만 학년이 높아지면서 르로이와는 멀어지고, 늘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주며 자신의 꿈과 공부에 신경쓰던 유일한 사람인 양아버지 칼 마저 세상을 떠난다. 힘들게 학교 생활을 이어가던 중, 몰리는 가장 절친한 친구이자 학교 치어리더 단장인 캐롤린 심슨과 연인 관계가 된다. 캐롤린은 몰리와 성적인 관계는 맺으면서도 ‘레즈비언’이란 사실을 인정하려 하지도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날까봐 전전긍긍한다. 결국 이 문제로 캐롤린은 몰리를 모함하고, 둘 사이 관계도 끝이 난다.

**출간 당시 파격적인 소재였던 여자 동성애자의 삶을 있는 그대로 그린 작가의 자전적 소설**

졸업 후 플로리다 대학교에 입학한 몰리. 돈 많고 오로지 술 마시며 진탕 노는 일에만 관심 있는 룸메이트 페이 라이더와 친구가 되고, 한 학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연인 사이로 발전한다. 둘은 동성애가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일임을 알면서도 개의치 않고 자유롭게 사랑하면서 누구에게도 숨기지 않는다. 몰리와 페이의 관계를 눈치챈 학교 여학생들이 학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학장은 몰리에게 '문제'를 극복하도록 도와주겠다고 나서지만 몰리는 되려 학장의 설득에 위선적인 사고방식이라며 크게 반발한다.

결국 몰리는 학교 측으로부터 '윤리적' 사유로 장학금 지급을 철회한다는 통보를 받고, 페이마저 학교에서 자취를 감추고 만다. 학교에 계속 다니고 싶지도 않고 늘 자신을 못마땅해하던 양어머니의 집에 갈 수도 없게 된 몰리는 차를 얻어 타고 뉴욕으로 향하며 스스로 더 괜찮은 인생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다진다. 빈털터리 신세로 뉴욕 생활을 시작한 몰리. 온갖 우여곡절을 겪으며 영화제작 공부를 하고 싶다는 꿈을 키우고, 특유의 미모와 재치, 강력한 추진력과 결단력을 앞세워 그 꿈을 향해 나아간다. '루비프룻 정글'은 여성의 생식기를 가리키는 속어로 이 작품은 출간 이후 초기 동성애소설로 수많은 찬사를 받은 작품이다.

#### <저자 소개>

리타 메이 브라운(Rita Mae Brown)은 에미상 후보에도 오른 극작가이자 시인, 소설가로 《In Her Day》, 《Six of One》, 《Southern Discomfort》의 작품을 발표했다.

제목 : GIDEON  
가제 : 기드온  
저자 : Alex Gordon  
출판사: Harper Voyager  
발행일: 2015년 1월 6일  
분량 : 432 페이지  
장르 : 소설



### 아버지의 죽음으로 밝혀진 가족의 엄청난 비밀, 악마의 영혼이 사로잡은 마을 기드온

자신을 그저 아주 평범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살았던 로렌 레이던. 하지만 어느 날 그녀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며 가족의 놀라운 비밀이 밝혀진다. 아버지 존 레이던은, 한 때 다른 이름으로 불리며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았던 것. 로렌은 아버지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 찾아보기로 결심한다. 단서는 낡은 사진 한 장과 편지 몇 통이 전부. 그 희박한 증거만 붙든 채, 로렌은 무작정 '기드온'이라 불리는 일리노이주의 작은 마을로 향한다. 하지만 여행길에 오른 직후부터 로렌을 두렵게 만드는 신기한 사건들이 끊이지 않는다. 낯선 남자가 그녀를 무섭게 따라붙으며 모습을 드러내고, 그녀를 죽음으로 몰고 가려는 자들도 나타난다. 분명 누군가, 혹은 무엇인가가 진실을 밝히려는 로렌의 시도를 저지하려는 것이 분명했다. 형체를 제대로 알 수 없는 적, 솟구치는 공포 속에서도 로렌은 아버지를 둘러싼 미스터리를 반드시 풀고 그녀 자신의 삶을 좌우할 비밀을 밝히려 다짐한다.

마침내 도착한 작은 마을 기드온에서 로렌은 힘든 여정에서보다 훨씬 더 큰 혼란을 느낀다. 시간마저 멈춰버린 것 같은 이상한 마을에서 사람들은 하나 둘 자취를 감추기 시작하고, 길에서 마주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로렌에게 위협을 가한다. 200년 전 악마가 화형을 당했다는 이 마을은, 그 세월이 무색할 만큼 여전히 소름이 끼치는 냉기가 가득하다.

1836년 12월 20일, 이 마을에서 사람들에게 악마로 지목된 니콜라스 블레인이 모두가 보는 앞에서 죽어갔다. 그의 영혼이 악마와 타락한 존재들의 저주를 받았으므로 그를 고치고, 참회를 이끌어내기 위함이라는 이유로 불길에 휩싸이는 형벌이 내려진 것이다. 니콜라스가 불타는 모습을 지켜본 마을 사람들은 마을에 들끓던 병을 없앴다고 생각했다. 이제 모두 나올 수 있다고, 다시 평화롭게 살 수 있다고 믿으며 안도했다. 그러나 니콜라스의 몸을 에워싸고 불길이 치솟던 그 때, 하늘에 엄청난 구름 떼가 몰려오고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불에 죽지 않고 스스로 죽고자 하여 불과 함께 떠났지만, 멈추지 않고 더 강해질 것이다.”

### 200년 넘게 한 마을을 채운 미스터리한 악의 존재, 그 악마를 물리칠 힘을 가진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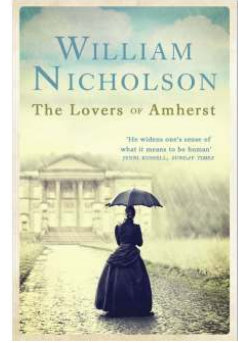
1836년부터 기드온 전체를 공포로 몰아 넣은 악마의 영혼, 그 영혼을 물리칠 수 있는 힘. 마을

에서 단서를 찾아 헤매던 로렌은 그녀의 가족이 그 힘을 가지고 있으며, 이 세상을 모든 악마로부터 지켜내야 할 임무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명쾌한 문체, 몸서리치게 충격적인 내용들이 이어지는 탄탄한 줄거리, 세밀한 인물 묘사가 돋보이는 스릴러 소설이다.

**<저자 소개>**

알렉스 고든(Alex Gordon)은 일리노이에서 또 다른 스릴러 작품을 집필 중이다. 위 작품은 데뷔작이다.

제목 : THE LOVERS OF AMHERST  
가제 : 애머스트의 연인들  
저자 : William Nicholson  
출판사: Quercus Publishing Plc  
발행일: 2015년 2월 5일  
분량 : 400 페이지  
장르 : 소설



### 19세기, 엄격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걱정적 사랑에 빠진 애머스트의 두 남녀

“에밀리 디킨슨 작품 말야, 캠브리지에 다닐 때 분명히 읽어봤을 거야.” 앨리스는 3년 만에 다시 만난 친구 잭에게 열심히 설명 중이다. 에밀리 디킨슨에게는 오빠가 한 명 있었고, 그는 19세기 엄격한 뉴잉글랜드에서 불행한 결혼생활을 하던 중 학교 동료의 아내와 사랑에 빠졌다. 남자는 50대, 여자는 20대 나이였지만 두 사람의 열정적인 사랑에 나이는 중요치 않았다. “그 둘은 어디서 사랑을 나누었을까?” 앨리스의 질문에, 잭은 그 때 모텔이 있었을 리 만무하니 에밀리 디킨슨의 집 거실이었을 것이며, 방 안에서 에밀리가 문틈으로 새어 나오는 소리를 몰래 듣고는 두 사람의 관계가 시의 소재가 되었을 것이라 말한다.

앨리스는 이 사랑 이야기를 소재로 영화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있다. ‘앨리스 디킨슨’이 쓴 ‘에밀리 디킨슨’이 등장하는 영화를 말이다. 앨리스는 자신과 성이 같은 여류시인의 작품을 접한 이후부터 시를 사랑하게 되었고, 시나리오 작가라는 인생의 꿈을 키웠다. 기자인 엄마, 시나리오 작가인 양아버지의 딸로 살아온 앨리스의 삶은 늘 ‘이야기’로 가득했다. 어느 날 양아버지가 앨리스의 단편 몇 페이지를 읽고 놀라움과 시샘을 동시에 드러내고, 앨리스가 타고난 작가라며 진심으로 칭찬해 주셨다. 이어 아버지가 알고 지내던 영화 제작자에게 글을 보여주었고, 시나리오로 한 번 완성해보지 않겠냐는 제의를 받게 된 것이었다.

‘19세기 애머스트에서 일어난 불륜, 섹스와 시.’ 이것이 앨리스가 구상 중인 시나리오의 주제였다. 1881년 8월, 젊고 아름다운 여성 마벨 토드는 메사추세츠 애머스트에 도착했다. 남편인 데이비드가 애머스트 대학의 부교수 자리를 얻으면서 함께 오게 된 것이다. 같은 대학에서 회계를 담당하는 오스틴 디킨슨은 지역에서 명망이 자자한 인물로, 자녀 셋을 키우며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 오스틴의 여동생인 에밀리는 바로 옆 집에서 살지만 집안에만 틀어박혀 지냈다. 마벨이 애머스트에 이사를 온 몇 달 후, 오스틴과 마벨은 걱정적인 사랑에 빠진다.

### 시인의 눈으로 그린 먼 옛날의 사랑, 2013년에 시작된 또 하나의 용인되지 않는 사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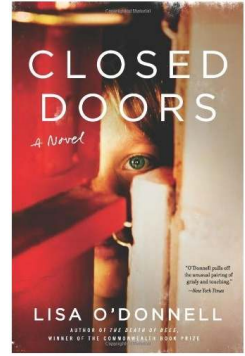
2013년 10월, 스물 넷 앨리스 디킨슨은 제대로 된 남자친구도 찾지 못하고 카피라이터 일에도 신물이 나 있던 차에 대학 시절 푹 빠졌던 에밀리 디킨슨의 시와 시에 그려진 사랑 이야기를 영

화 시나리오로 쓸 기회를 얻는다. 바로 오스틴 디킨슨과 마벨 토드의 허락되지 않은 불륜 이야기였다. 그러던 중 앨리스 자신도 애머스트에서 만난 닉이라는 나이 많은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에 휩싸이게 되고, 에밀리 디킨슨의 눈으로 그려진 둘의 위험한 사랑 이야기와 앨리스의 현재 사랑이 서로 얽히기 시작하는데.. 과연 앨리스의 사랑과 시나리오 안 인물들의 사랑은 어떤 끝을 맺을 수 있을까?

#### <저자 소개>

윌리엄 니콜슨(William Nicholson)은 드라마 '쉐도우 랜드(Shadowlands)', '라이프 스토리(Life Story)'의 각본을 쓴 작가로 두 작품 모두 영국 아카데미 영화상(BAFTA) 최우수 드라마상을 수상했다. 영화 '글래디에이터' 시나리오 공동 작업에도 참여했으며, 영화 '레미제라블', '만델라'의 극본도 썼다.

제목 : CLOSED DOORS  
가제 : 닫힌 문  
저자 : Lisa O'donnell  
출판사: Harper  
발행일: 2014년 5월 20일  
분량 : 256 페이지  
장르 : 소설



### 1980년대 스코틀랜드 작은 섬에 사는 열한 살 소년, 어른들의 이야기를 엿듣기 시작하다

“로스시에 낯선 사람은 없단다, 마이클. 다들 네가 누군지 알고, 앞으로도 항상 그럴 거야. 참 축복받은 일이기도 하지만, 저주이기도 해.” 대처 총리가 집권하던 시절, 열한 살 마이클 머레이는 스코틀랜드 해안에서 떨어진 어느 작은 섬의 소도시 로스시에서 살고 있다. 혈기왕성하고 축구공 떨어뜨리지 않고 연속 차기가 주특기인 마이클에겐 또 한 가지 재주가 있는데, 바로 비밀 지키기였다.

가족들은 어른들 일을 이해하기엔 마이클이 너무 어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마이클은 문틈으로 새어 나오는 이야기를 자주 엿듣고 있었다. 엄마가 얼굴에 멍이 든 채 집에 돌아온 날, 마이클은 자신이 엿들은 이야기 속에 그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문득 깨닫고는 충격을 받고 혼란스러워진다. 엄마 얼굴에 난 상처에 대해 어른들은 길에서 이상한 사람을 만나 다급히 도망가다가 넘어졌다고 마이클에게 이야기했지만, 마이클은 분명히 그 일과 관련이 있는 단서를 직접 들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학교에서 몇몇 아이들이 마이클을 슬슬 피하기 시작한다. 아빠도 이 작은 마을에서 사람들이 멀리하는 대상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집에서 어른들이 속삭이는 비밀 이야기들, 마을에서 사람들이 수군대는 말들이 이젠 그냥 무시하기엔 너무 크게 들리기 시작하고, 마이클은 그 동안 엿들어서 알게 된 비밀보다 훨씬 더 큰 비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혹여 다른 사람들이 먼저 밝혀내면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다시 행복했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마이클은 조각난 단서를 하나하나 맞추기 시작한다. 하지만 알갭게도 주변 상황은 마이클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곧 있을 장기자랑 대회 준비도 해야하고, 이 마을에서 마이클의 최대 강적인 ‘지저분한 앨리스’가 자신의 계획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잘 피해야하고, 할머니가 끓이는 끔찍한 음식도 잘 피해야 한다.

### 이해할 수 없는 가족의 변화와 주변의 사건들, 어른들의 세상을 이해하고 싶은 아이의 고투

마이클은 엄마가 왜 점점 우울한 기분에 빠져드는지, 아빠는 왜 갈수록 더 크게 화를 내는지,

사전을 뒤져가며 어른들의 이야기를 해석하고 그 속에 담긴 비밀을 찾아내려 애쓴다. 마침내 그 비밀이 가족을 영원히 갈라서게 만들 수 있는 내용임을 알게 되는데... 아직 이해할 수 없는 일들과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괴로워하는 조숙한 어린이의 두려움과 자유로움을 11살 주인공의 시선으로 생생하게 그린 작품이다. 사랑, 어느덧 잃어버린 순수함, 힘든 시기 가족의 소중함을 생각하게 하면서, 독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진다. 아이들은 진실로부터 얼마나 보호를 받아야 할까? 침묵은 이롭기보다 해로운 것일까? 썩 유쾌하지 않은 상황을 아이 특유의 따스함과 유머로 헤쳐나가는 모습이 흡입력 있게 펼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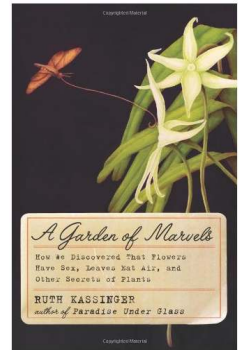
#### <저자 소개>

리사 오도넬(Lisa O'donnell)은 2010년 발표한 베스트셀러 《The Death of Bees》로 2013년 '커먼웰스 도서상(Commonwealth Book Prize)'을 수상한 작가다. 2000년에는 극본 'The Wedding Gift'로 '오렌지 상(Orange Prize)' 신인극작가상을 수상했다.



## NON-FICTION

제목 : GARDEN OF MARVELS  
가제 : 경이로움이 열리는 정원  
저자 : Ruth Kassinger  
출판사: William Morrow  
발행일: 2014년 2월 25일  
분량 : 416 페이지  
장르 : 과학



### <퍼블리셔스 위클리>가 다가오는 봄 가장 기대하는 도서, 위트와 매력이 넘치는 식물 이야기

“이 책은 내가 저지른 살해의 결과로 탄생했다.” 저자는 이런 무시무시한 고백으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그 불행한 희생양은 바로 금굴나무였다. 저자가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 물을 주고, 비료도 챙기고, 분갈이에 가지치기를 했지만 금굴나무는 잎이 갈색으로 변하더니 시들시들해졌다. 왜 같은 정원에 있는 다른 식물들은 잘 자라는데 유독 금굴나무만 시들어버렸을까? 저자는 심각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이 고민이 시작점이자 토대가 되어 귀중한 통찰을 얻었다. 키우던 식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자 크게 낙심한 저자는 더 훌륭한 정원을 가꾸기 위해 식물학의 기본 원칙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실내에서 식물을 기르는 방법에 대해서는 잘 알면서도 뿌리, 줄기, 잎, 꽃이 실제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식물의 생리학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그리하여 저자는 또 다시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고 마음먹고 식물학의 핵심원리를 공부한다. 식물의 비밀스러운 삶, 그 속을 파헤친 저자의 현명하고도 황홀한 여정이 바로 이 책에 담겨 있다.

늘 비애에 젖어 살던 이탈리아의 해부학자부터 세상과 등지고 살았던 프랑스의 외과의사, 집착이 강했던 독일의 학교 선생님, 그리고 찰스 다윈에 이르기까지 저자는 식물 연구를 맨 처음 시작한 옛날 학자들의 발자취를 쫓는다. 이 학자들은 식물에 대한 근거 없는 믿음과 오해를 없애고, 꽃도 섹스를 하며 잎은 공기를 먹고 뿌리는 먹을 음식을 선택한다는 사실을, 나팔꽃이 담장을 기어오르게 하는 것은 호르몬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어 필자는 현대식 정원과 농장, 실험실에서 식물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들여다보고 1톤이나 나가는 호박, 새카만 페투니아, 오염된 토양에서 비소를 먹어 치우는 양치식물, 키가 3.6 미터 넘게 자라는 생물연료용 풀 등 새로운 기술이 빚어내는 식물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준다. 또 현대사회가 직면한 기후변화를 해결하고 전세계적인 빈곤 문제를 완화하는데 희망이 될 만한 과학계의 연구 성과도 소개한다.

초기 식물학자들, 현대 과학으로 완성된 신기한 식물, 원에 상식까지 정보와 재미가 가득한 책

저자는 이토록 열심히 배워서 익힌 통찰력을 자신이 가꾸는 정원에 활용하기 시작한다. 덕분에 다섯 가지 과일이 한꺼번에 열리는 ‘칵테일’ 나무를 기르고, 병든 ‘부처님 손바닥 나무(불수감나무)’를 유익한 균류를 활용하여 치료하고, 식물이 목이 마르면 자신의 휴대전화로 문자가 오게 만들고, 혈벳은 금굴나무에서 마침내 잎이 돌아나게 만드는데 성공한다. 저자가 직접 찾은 각종 해결 방안들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과학적인 정보, 그 동안 많이 알려지지 않은 역사가 한데 어우러진 책이다. 저자의 정원 속을 함께 거닐다 보면 식물이라는 자연의 정교한 선물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정원은 경이로움 그 이상이다. 지구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만큼이나 기적에 가깝다.”는 저자의 말처럼 말이다.

용감무쌍하고 지칠 줄 모르는 저자 덕분에, 연구자 특유의 열정과 수집가의 특유의 열의가 합쳐지면서 독자들은 식물학 중에서도 가장 흥미진진하고 배울 것이 많은 내용을 얻을 수 있다. 엄청난 양의 정보를 마치 저자 개인의 기억을 이야기하듯 편안하게 듣다보면 어느새 소중한 지식을 가득 얻게 될 것이다. 북리스트와 디스커버리 매거진, 콜럼버스 디스패치 등 많은 매체의 찬사를 받은 책이기도 하다.

#### <저자 소개>

루스 캐신저(Ruth Kassinger)는 예일대학교에서 공부한 후 존스홉킨스 대학교에서 석사를 취득했다. 정원 가꾸기, 역사, 과학을 접목시킨 책을 써 온 작가로 청소년을 위한 과학서, 역사서로 수상한 경력이 있다. <워싱턴 포스트>, <시카고 트리뷴>, <네셔널 지오그래픽 익스플로러>, <헬스 매거진>, <사이언스 위클리> 등에 과학, 건강에 관한 글을 다수 기고했다. 저서로는 《Paradise Under Glass》가 있다.

제목 : THE POWER OF THANKS

가제 : 감사의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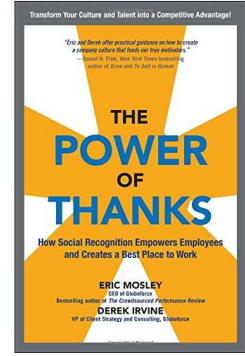
저자 : Eric Mosley, Derek Irvine

출판사: McGraw-Hill

발행일: 2015년 1월 9일

분량 : 240 페이지

장르 : 경제 경영



### 조직의 심장과도 같은 ‘문화’, 안정적이고 창의적을 이끄는 실질적인 원동력이다

‘고맙습니다’라는 말에는 놀라운 힘이 있다. 업무를 잘 완료해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들으며 일하는 사람은 사명감을 느끼고 자신의 일을 더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된다. 회사에 엄청난 충성심을 갖고 회사가 세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이상을 해낼 수 있도록 더 새로운 방법은 없는지 늘 자진해서 연구한다. 현대 산업계에서 ‘고맙습니다’라는 말은 단순히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참신한 방법일 뿐 아니라, 더 괜찮은 직장을 만들고 올바른 직장문화를 형성하며 안정적이고 창의적인 경쟁을 이끄는 길이기도 하다.

어떤 조직이든 문화는 그 조직의 심장이자 영혼과 같다. 경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바로 문화에서 시작된다. 문화의 힘은 강력하고 많은 곳에 영향을 주며 오래도록 지속된다. 기술이나 자본, 관리 능력, 훌륭한 아이디어가 풍부한 산업계에서 우수한 결과와 보통의 결과,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핵심은 문화이다. 하지만 문화는 여러모로 잘못 이해되거나 남용되고, 무시된다. 금융계, 전문 기술업체와 같이 능동적인 경영 방식이 자리한 곳에서는 리더가 문화경영을 마치 건물 로비에 걸린 그럴듯한 문구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성공에는 문화가 필수임을 잘 아는 사람들도 연례 영업회의에서 문화는 기업의 가치 정도의 무게로 이야기하면 되리라 생각한다. 혹은 문화를 관리가 불가능한 일종의 “마법”으로 보고, 알맞은 사람을 알맞은 자리에 앉히면 저절로 굴러가는 무언가로 여기는 리더들도 있다.

### 직원의 공로를 제대로 파악하고 인정하는 문화가 확립되면 성과는 저절로 따라온다

두 저자가 경영하는 회사 ‘글로벌포스(Globoforce)’에서는 “감사” 경영을 채택했다. ‘감사합니다’가 발생시키는 힘으로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회사 문화를 관리한다. 사람들의 인식과 달리 문화는 과학적으로 정확한 방식에 따라 관리가 가능하다. 조직의 문화는 학습이 가능하고 향상시키거나 본질적으로 변화가 가능하며, 다양한 형태로, 사업의 모든 측면에 적용될 수 있다. 효과가 검증된 방식으로 올바르게 적용한다면 문화 경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도 있다. 영업이윤, 수익과 소비자 만족도 등 수량화할 수 있는 증거로도 확인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직원 공로인정’ 설계회사 글로벌포스의 대표인 이 책의 두 저자는 사회

적 인정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설명하고 각 업체가 사회적 인정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본다. 신중한 계획을 통해 마련된 ‘공로인정 문화’를 지속적으로 시행하면, 아래와 같은 놀라운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저자들은 설명한다.

- 직원의 업무 참여율과 회사 충성도가 높아진다.
- 각 팀, 부서의 단결력이 높아진다.
-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 수 있다.
- 소비자 만족도가 향상된다.
- 회사 이윤과 늘어나고 조직 전체가 강건해진다.

사회화, 국제화되는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세대가 한 공간에서 일주일 24시간씩 일하는 현대 산업계에서, 직원의 공로를 제대로 인정하고 회사를 더욱 강력하게 성장시킬 수 있는 실용적인 조언과 사례를 얻을 수 있는 책이다.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회사의 성패를 좌우할 주주와 같은 마음이 되도록 만드는 문화가 형성되면, 긍정적인 에너지가 조직 전체에 확산되며, 사업적인 성공은 자연스레 따라온다. 마법처럼 보이지만, 아주 상식적이고 영리한 경영 방식일 뿐이다.

#### <저자 소개>

에릭 모슬리(Eric Mosley)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현대적이고 전략적인 직원 공로인정 문화를 확립하도록 돕는 ‘글로벌포스’의 CEO다. 저서로는 《The Crowdsourced Performance Review》가 있다.

데렉 어바인(Derek Irvine)은 글로벌포스의 부사장이자 ‘고객 전략 및 컨설팅’부서에서 일하고 있다.

제목 : I USED TO KNOW THAT: MATHS

가제 : 분명히 배운 적 있는 수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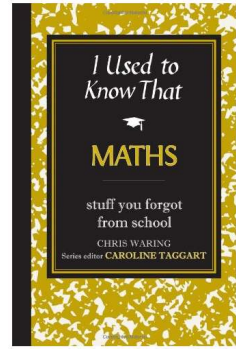
저자 : Chris Waring

출판사: Michael O Mara Publications

발행일: 2010년

분량 : 192 페이지

장르 : 수학



### 알고보면 정말 유용한 수학, 끔찍했던 기억 대신 쉽고 재미있게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

수학을 떠올리면 누구나 학창시절 끔찍했던 순간과 좌절을 한꺼번에 느낀다. 물론 수업 시간에 칠판 앞에 불러 나와서도 별다른 어려움 없이 문제를 척척 풀어내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 소수의 아이들은 평범한 다른 아이들의 분노만 더 키울 뿐이다. 수학능력시험만 끝내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학을 기억 저 편으로 던져버리고 ‘음의 상관관계’니, 이름만 들어도 몸서리치게 만드는 ‘2차 방정식’이니 하는 단어를 두 번 다시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X값 구하는 문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가상의 삼각형, 아무 의미도 없어 보이는 확률 문제(주사위를 100번 굴려서 대체 뭘 알 수 있단 말인가!)로 만나는 수학은 실생활에서 전혀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게 만든다. 그러나 수학 교사이자 수학의 진정한 ‘목적’과 규칙을 제대로 알리는 일에 매진해 온 이 책의 저자는 닥트 던지기에서 좋은 점수를 얻는 것부터 고층빌딩을 건설하는 일까지, 수학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이야기한다.

수학은 규칙적이고 논리적이며, 때로는 철학적이다. 심지어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과학자들이 우리가 사는 물리적인 세상을 설명하고 탐구하는 언어로 사용되는 것도 바로 수학이다. 수학은 논리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고, 이런 이유로 어느 업종이든 직원을 뽑을 때면 수학 점수가 높은 지원자를 선호한다. 기차역, 휴대전화 등 현대사회를 구성하는 거의 모든 요소가 그 뿌리를 찾아가면 수학적 원칙으로 운용될 만큼 수학은 쓸모가 많다. 저자는 수학의 기본적인 내용부터 시작하여 점차 범위를 확대해나가는 방식으로, 독자들이 들어본 적도 없는 내용보다는 기억 저편에 있는 내용을 끄집어내려 노력한다. 그리하여 오래 전 수학 시간에 보았던 수학 잘 하는 어떤 친구처럼, 실제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수학을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저자는 이야기한다.

### 가장 기본적인 수학부터 조금은 복잡한 내용까지, 기억을 새롭게 일깨우고 활용할 수 있다

이 책은 과학, 역사, 지리, 영어와 함께 “I Used to Know That(분명히 배운 적 있는)” 시리즈의 하나로, 한 때 열심히 배웠지만 잊어버린 지식을 일깨우고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곱셈과 나눗셈, 분수, 소수, 평균, 중간 값, 원의 면적 구하기, 사면체(사면체가 원지 기억나지 않아도 저자가 다 설명해준다),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부터 천천히 읽다 보면 방정식,

비율 구하기, 코사인, 원 그래프 등 결코 유쾌한 기억으로 남아 있지 않을 다소 복잡한 내용까지 친근하게 다가온다. 독자들이 편안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즐거운 수학책이다.

**<저자 소개>**

크리스 웨이링(Chris Waring)은 임페리얼 칼리지에서 기계공학을 공부하고 헤드헌터로 재직하다 수학 교사가 되었다. 저서로는 《From 0 to Infinity in 26 Centuries》가 있다.

제목 : TOO HOT TO HANDLE  
가제 : 너무 뜨거운 이야기  
저자 : Jonathan Zimmerman  
출판사: Princeton University Press  
발행일: 2015년 2월 22일  
분량 : 288 페이지  
장르 : 과학



### **학교가 주도하는 성교육의 역사, 그 등장 배경과 실효성,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뜨거운 논란**

20세기가 시작되면서,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인류는 성적 자유를 과거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수준으로 누리게 되었다. 결혼은 애정 관계를 토대로 이루어지고 남성과 여성의 성적 쾌락이 동등하게 중시되었으며, 피임법의 발전, 자손을 낳는 일과 사랑을 나누는 일이 분리되기 시작한 것도 그 흐름에 한 몫 했다. 동성애자들도 더 이상 숨어지내지 않고 모습을 드러내고, 많은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문학과 대중매체에서도 전통적으로 금기시되던 성적 주제가 공공연하게 다루어지고, 그에 대한 법적인 검열은 저만치 사라졌다. 이와 같은 양상은 개발도상국보다는 오랜 전통과 제약이 점차 퇴색해진 선진국에서 보다 공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성적 자율성을 얻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자유를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 그 기준은 어디에서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현대 사회가 제시한 답은 바로 성교육이었다. 공립학교가 확대되던 시대였으므로 가장 적합한 방안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리하여 국가가 주도적으로 교육 체계를 확대하여 학교에서 섹스에 대해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통제하려는 흐름이 유럽과 미국에서 처음 시작되었고 점차 전 세계로 확산됐다.

그러나 학교와 성의 만남, 그 강력한 흐름은 학교 바깥에서 어마어마한 논쟁을 낳았다. 학교 자체에서도 어떤 방향으로 그 계획을 실현해야 할지 구체적인 지시나 지침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어린이가 성적인 내용을 접한다는 것에 대해 전반적으로 불편해하고 동의하지 않는 인식 때문이기도 했고, 학교라는 기관의 조직적인 특성상 국가가 만든 성교육 지침도 교장이나 교사가 꺼리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성에 관한 가르침은 교실이 아니라 가정에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았다. 성은 학교가 품기엔 너무나 많은 분쟁을 낳을 소지가 있고, 불안한 소재였다. 사람들이 자유로이 국경을 넘나들며 이동하는 시대가 오면서, 학교 성교육을 막으려는 움직임은 더욱 힘을 얻었다.

### **성교육의 역사, 필요성, 사회적 변화가 끼친 영향을 포괄적으로 고찰한 책**

미국에서는 1900년대 초부터 시민들의 성병 예방을 목적으로 대대적인 학교 성교육을 시작했다. 그러나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이 같은 방향은 사회적 목표와 결과보다 개개인의 권

리와 즐거움에 큰 가치를 두는 유럽에서 큰 비난을 받았다. 제 3세계 국가에서는 성교육이 무시무시한 HIV/AIDS 확산을 막기 위한 방안이었다. 2000년대 초에는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가 학교의 공식적인 교육과정의 하나로 성교육을 실시했다. 저자는 성교육이 확대된 것은 분명하지만, 아직까지 안정적인 지지기반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한다. 부모나 종교 단체 지도자들은 성이라는 주제가 권위를 떨어뜨리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학교 교사나 교장들은 그렇지 않아도 점차 약화되는 교권이 더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결과적으로 성적 행동에 더 많은 자유가 부여되는 시대에 성교육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는 점차 커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성교육은 갈 곳을 잃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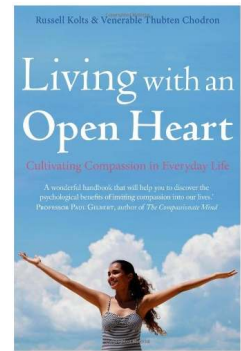
저자는 현대사회에서 학교가 주도하는 성교육이 어떻게 등장하고 진행되어 왔는지, 현재 어떤 딜레마에 빠져있는지 상세히 설명한다. 성교육의 역사와 모든 사람을 위한 성적 분별력을 얻기 위해 성교육이 어떤 면에서 필요한지 그 이유를 조목조목 알 수 있다. 사회적, 정치적 역사가 성교육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좀 더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 <저자 소개>

조나단 짐머만(Jonathan Zimmerman)은 뉴욕대학교 교육학, 역사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Small Wonder: The Little Red Schoolhouse in History and Memory》, 《Innocents Abroad: American Teachers in the American Century》 등이 있다. 그 밖에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등 다양한 간행물에 글을 기고했다.



제목 : LIVING WITH AN OPEN HEART  
가제 : 열린 마음으로 살기  
저자 : Russell Kolts, Thubten Chodron  
출판사: Robinson Publishing  
발행일: 2013년 11월 7일  
분량 : 400 페이지  
장르 : 자기계발



### **불교 사상과 서구 심리학의 만남, 측은지심이 가져다 주는 진정한 행복을 이야기하다**

서구 심리학에서는 마음에 관한, 좀 더 넓은 범위에서는 한 개인에 관한 과학적 연구에 집중한다. 정신건강의 문제나 공격성, 자기주장, 자존심이나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 더 멋진 몸을 만드는 법 등을 중시한다. 그 결과 지난 30년간 우리는 점점 더 자기 중심적이고 더욱 자아도취에 빠진 채 스스로에 대한 인식이나 자기 표현에 사로잡힌 모습이 되었다. 일터나 데이트를 할 때와 같은 ‘현실’에서나, SNS에서나 다 마찬가지다. 마치 공연에 나간 배우처럼, 자아비판과 수치심, 사람들이 자신의 연기를 받아주지 않고 거부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상처를 가득 안고 살아간다. 하지만 세상에서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갖고, 더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식의 태도와 물질적 풍요로움이 항상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 오히려 우울한 감정과 불안감이 엄습할 위험만 커질 뿐이며, 실제로 서구 사회 젊은이들 사이에 이러한 결과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더욱 많이 가지는 방법에 집중하려는 노력을 중단하고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삶의 진정한 모습을 그대로 바라보는 방식으로 접근해보면 어떨까? 석가모니가 걸었던 방식대로, 고통 속에 직접 뛰어든다면? 정신나간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고통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때 비로소 행복을 만들어나가는 스스로의 능력도 훨씬 더 굳건해진다. 삶에서 불만족스러운 부분을 찾아 거기에 집중하려는 노력이야말로 마음을 변화시키고 더 단단하게 만드는 참된 여정이랄 수 있다. 그리고 그 여정의 중심에는, 남을 측은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키우려는 노력이 자리하고 있다.

### **개인주의에 빠진 현대사회가 낳은 비참한 결과들, 완전히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직접 겪은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는 측은지심이 더 큰 행복을 낳는다는 사실을 솔하게 접할 수 있다. 남과 나를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조화롭게 하고, 자기 비판적인 마음과 지나치게 수치스러워하는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더 돌보려는 마음으로 대하게 되고, 내면에 평화와 기쁨, 만족을 느낄 수 있다고들 이야기한다. 심지어 서구 사회의 과학적인 평가를 통해서도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측은지심을 키우면 뇌와 신체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입증되었다. 측은지심은 뇌에서 긍정적인 감정과 관련된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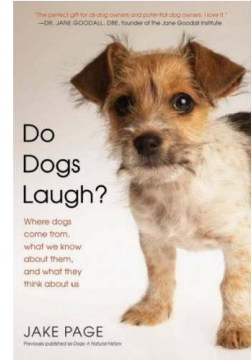
위를 활성화시키고, 이는 심혈관계와 면역계에 유익한 영향을 준다. 또 측은지심은 괴로울 때, 자아비판과 부끄러움에 파묻히기보다는 그 괴로움의 실체를 들여다볼 수 있게 도와준다. 두 저자는 이 책에서 측은한 마음을 품을 수 있으면 소소한 일상에서 얼마나 많은 즐거움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지 불교 정신과 서양의 심리학을 적절히 결합시켜 설명한다. 짝막하게 이어지는 다양한 논의와 사색, 개인적인 일화, 측은지심을 더욱 고양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소개된다. 나와 타인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다른 사람들도 그 소중한 마음을 키울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마음이 절로 들게 만드는 책이다.

#### <저자 소개>

러셀 콜트(Russell Kolt)는 이스턴 워싱턴 대학교의 임상 심리학자이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우울증, 불안감, 성격장애, 분노, 애착장애 등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환자들을 만나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연민, 마음챙김 방식으로 정서적 문제와 인생의 고난을 헤쳐나가는 법에 관한 강연과 워크숍을 자주 열고 있다. 저서로는 《THE COMPASSIONATE MIND APPROACH TO MANAGING YOUR ANGER》 등이 있다.

툽텐 초드론(Thubten Chodron)은 1977년에 인도에서 불교에 귀의했고 1986년에는 대만에서 비구니 승려가 됐다. 달라이라마를 비롯한 티벳의 훌륭한 승려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인도와 네팔에서 오랜 세월 티베트 전통 불교를 공부했다. 저서로는 《육하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 화》(국내 2007년 번역 출간) 등이 있다.

제목 : DO DOGS LAUGH?  
가제 : 개도 웃을까?  
저자 : Jake Page  
출판사: Collins  
발행일: 2008년  
분량 : 228 페이지  
장르 : 취미(애완동물)



### 개의 기원과 특징, 인간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된 연유를 꼼꼼히 살펴보는 방대한 정보와 이야기

개는 어디에서 왔을까? 어쩌다 인간과 이토록 끈끈한 관계를 맺게 되었을까? 정말 개들도 생각이라는 걸 할 수 있을까? 이러한 궁금증은 그 동안 수백 만번 제기되었을 것이고, 그 답을 구하기 위한 시도도 수없이 이루어졌다. 아멜리아, 커리, 티컵, 주노, 주피터, 덩까지 여섯 마리의 개와 가족처럼 함께 살고 있는 저자 역시 자연스럽게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고 이야기한다. 여섯 마리 모두 외모며 성격이며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것도 궁금한 부분이지만, 마음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 개라는 존재가 어떻게 언제부터 사람과 함께 지내게 되었는지 강한 호기심을 느꼈다. 그리하여 저자는 개의 발달사(자연사)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애완견의 역사에 관한 수많은 이야기 중에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쫓겨나면서 그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다. 먹지 말아야 할 사과를 먹은 두 남녀를 쫓아내면서, 신은 천국의 문 앞에 한 무리의 맹수를 세워서 아담과 이브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지키게 했다고 한다. 튼튼한 턱과 쏘살같이 달리는 능력을 지닌, 늑대와 비슷하게 생긴 맹수들이었다. 이들은 신이 창조한 모든 생명이 한데 어울려 에덴 동산에서 평화로이 살던 시절, 인간을 관찰하고 함께 지내면서 얻은 인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인간의 접근을 막아야 하는 새로운 임무가 주어진 것이다. 맹수 무리는 두 패로 갈렸다. 일부는 그 동안 신이 유독 예뻐하던 인간이 쫓겨난 것을 크게 기뻐하며, 인간을 해치는 일도 기꺼이 하리라 다짐했다.

반면 연약한 인간들이 천국을 떠나 위험한 세상에서 어찌 살아갈까, 걱정이 앞선 무리들도 있었다. 이들은 결국 아담과 이브를 따라 함께 떠나기로 결심하고, 두 사람과 동행하면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키고 도와주기로 했다. 그 모습에 신이 왜 지시를 따르지 않냐고 꾸짖자, 인간을 따라나선 맹수 무리의 대장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그들이 죽기를 바라셨다면, 쫓아내고 돌아오지 못하도록 지키라는 임무를 저희에게 주시는 대신 그냥 에덴동산에서 죽이셨을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있기를 바라시는 것 같기에, 저희가 그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천국에 돌아오려고 애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의 동료이자 영혼의 동반자가 되어 그 임무를 다하겠습니다. 인간 스스로 살아 남아 번영할 수 있게 되면, 그들만의 에덴 동산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의 문을 공격하려 하지도 않겠지요.” 신은 그 대답

을 듣고 크게 기뻐했다고 한다.

**과학적인 데이터와 위트 넘치는 경험담, 진화와 역사... 개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책**

집에서 기르는 개는 그 기원이 코요테냐, 자칼이냐를 두고 오랜 세월 과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었지만 유라시아 대륙에 살던 늑대가 기원이라는 설이 대체로 수용되고 있다. 저자는 이와 같은 개의 기원과 개의 시력, 좋아하는 음식, 유머 감각에 이르기까지 개의 모든 특징을 알려준다. 또 개와 가장 가까운 친척인 늑대와 야생개의 역사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강아지부터 성견이 될 때까지 개의 발달 과정과 개들의 정서적인 특징, 지능까지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저자 소개>**

제이크 페이지(Jake Page)는 <네추럴 히스토리(Natural History)> 매거진의 편집장이자 <스미소니언(Smithsonian)> 매거진에서 과학 부문 편집장으로 일하고 있다. 자연사, 동물학에 관한 저서를 40권 이상 발표했고, 미스터리 소설을 쓰기도 했다.